



Museum of Arts & Design

아주 아트적인, 맨해튼의 새로운 명물

길을 가다 시선을 붙잡을 정도의 건축물이면 일단 미학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거기에 내부 구조나 안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의 퀄리티까지 받쳐 주면 금상첨화. 뉴욕 맨해튼에 새롭게 선보인 아트 디자인 박물관은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훌륭히 만족시키고 있다.

에디터 이승민 자료 제공 뉴욕관광청 한국사무소(02-777-6939)

박물관이나 갤러리는 그곳에 전시돼 있는 작품을 보러가는 재미도 좋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이자 아트가 되는 특별한 공간을 만난다는 즐거움도 무시 못한다.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를 찾을 때마다 유명 관광지나 쇼핑가와 더불어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박물관과 갤러리들. '모마'만 하더라도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꼭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지 않았는가. 모마로 잘 알려진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던 아트 디자인 박물관을 기억할 것이다. 이 아트 디자인 박물관이 얼마 전 맨해튼 콜럼버스 서클로 이전, 새롭게 개관했다. 전통 공예에서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품으로 유명한 이곳은 '모마'와 함께 뉴욕이라는 공간을 더욱 빛내주는 온갖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의 향연으로 가득 찬 공간.

재개관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는 미국 건축가 브래드 클로필이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뿐 아니라 공예품이나 미술품, 그리고 디자인이 오늘날 시각 미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의 작품 탄생을 위해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손에서 어떠한 창작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설계를 시도했다. 결과물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한 것.

현재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2층 티파니 갤러리에서는 <Elegant Armor : The Art of Jewelry>라는 제목으로 1948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던하고 동시대적인 보석 130점 이상이 전시된다. 3층에 위치한 영구 소장품 갤러리의 <Permanently MAD : Revealing the Collection>에서는 아트 디자인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Forward Thinking : Building the MAD Collection>은 수많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또한 4층과 5층에 마련된 갤러리에서는 전 세계 51명의 예술가들이 각각의 주제를 갖고 독특하게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Second Lives : Remixing the Ordinary>가 개최된다.

조지 페르티타 뉴욕관광청장은 "뉴욕시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아트 디자인 박물관을 새로 개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아트 디자인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곳만의 특별하고 위대한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장료는 15달러이며, 회원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개관 시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오후 6시, 목요일은 오전 11시~오후 9시. 월·화요일 및 주요 공휴일은 휴관이다. www.madmuseum.org

